

- 3월은 전도의 달입니다. 기도와 전도를 생활화하시기 바랍니다.
- 헌신예배:** 오늘 오후예배는 선교헌신예배로 드립니다.
  - > 헌신기관은 기도로 준비하시고 성도님들은 참여하여 은혜 받으십시오.
- 사랑의음악회:** 밀알심장재단에서 주최하는 심장병어린이돕기 사랑의음악회가 본교회에서 오늘 오후예배 시간에 있습니다(복음가수-신현진(아침),김인식).
  - > 성도님들은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정기교육위원회:** 오후예배 후에 정기교육위원회로 모입니다.
  - > 교육기관 담당자는 빠짐없이 참석바랍니다.
- 소망경로대학:** 금주 경로대학이 26일(금) 오전10시에 진행됩니다.
  - > 금주 식사준비 봉사는 사라,리브가,한나,1,2,8,9,10 여전도회에서 준비바랍니다.
  - > 차량, 식사, 기타봉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TV설교:** 담임목사님 주일낮 설교가 수요일 오후 6시55분 CBS기독교방송 TV강단 시간에 방영되고 있습니다(유선채널- 74번, 42번). 라디오방송은 매주 화요일 새벽5시35분 FM 103.1에서 방송됩니다. 시청바랍니다.
- 주일점심:** 오늘 점심은 조윤기안수집사님 가정(다음주는 한경택 안수집사님)
- 각반 성경공부:** 중직자들과 성경을 구체적으로 배우실 분들은 참여바랍니다.
- 금요기도회:** 3월26일 금요기도회는 제5여전도회 주관으로 모입니다(저녁8시).
  - > 새봄을 맞이하여 금주 금요일 심야기도회는 영육을 강건케 하는 간절한 기도의 밤으로 신유집회를 갖습니다. 1부는 손종기 목사님의 말씀, 2부는 이수월전도사님의 기도회순서로 새롭게 진행합니다.
  - >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바랍니다.
- 하루 교회속직 실시:** 계속하여 속직을 일자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 차질이 없도록 실시바랍니다(1층접견실,카타쿰기도굴,남여중보기도실에 온열난방 설치).
  - > 담당자: 주(장승준) 월(이대남) 화(김재한) 수(서진욱) 목(이병권) 금(박동수) 토(김용신)
- 보리떡운동:** 성도님들이 걱정된 헌금을 보리떡 운동이라 명명했습니다.
  - > 전성도님들은 보리떡 운동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오늘까지 190명).
  - > 계좌번호: 066-107-313157(광주은행)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 파워관계전도세미나:** 3월22일(월)-23일(화)까지 오전10시-오후5시까지 운남동 바른길교회에서 있습니다. 교역자와 전도팀 및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바랍니다.
- 부활주일 · 성례주일:** 4월4일(주)은 부활주일 및 성례주일로 지킵니다.
  - > 유아세례,세례,학습,입교를 받으실 분들은 신청하시고 교육받으시기 바랍니다.
- 다음주:** 장학위원회 헌신예배, 월례회, 당회로 모입니다.
- 주일전도:** 2남, 3남, 3여, 4여전도회 전도주일(주공아파트 10단지 전도).
  - > 남전도회-최지혁부목사, 여전도회-전순이전도사 인도로 실시바랍니다.
- 주일심방:** 이현일 최상운장로, 임현욱 김점자권사(환우, 낙심자 심방)입니다.
- 입원성도:** 박일순집사(성심병원) 김영숙모친(조선경권사 모친-아산병원)
  - 육영란집사(서울대학병원)
  - 정하섭장로-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바랍니다.

#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남은광교회

일어나라 함께 가자!(마26:46)

밀알심장재단 사랑의 음악회  
선교헌신예배  
정기교육위원회

담임 교역자  
손종기 목사  
(010-7283-8291)

3월은 전도의 달

\* 매주 수요일 오후6시55분 CBS(TV 74.42) TV강단 주일낮 설교 방영  
\* 매주 화요일 새벽5:35-5:55 CBS라디오(FM103.1) "오늘을 보람 있게"  
\* http://www.hanamekch.com/ \*E-mail: jkson9004@naver.com

◆시무장로: 이준호 김기태 정하섭 김문옥 김명관 이현일 김병업 이동만 객세중 송희중 옥 룡 김중철 최상운 김요상 김희중 진영만 김태석  
◆은퇴장로: 윤 석  
◆ 찬양위원장: 옥 룡 ◆  
【할렐루야성가대】  
◆대장:객세중, 지휘:최재현(오광록)  
◆반주:이은혜 · 김예슬  
【마리아성가대】  
◆대장:김문옥, 지휘:김유영(곽지혜)  
◆반주:김수경 · 계경숙

3/1-7 제123차 여리교작전 새벽기도회  
3/1 교역자산상기도회(교역자, 복지팀)  
3/7 후생위원회 헌신예배  
SFC,아브라함,리브가,한나여전도회 전도주일  
3/14 교육위원회 헌신예배  
여호수아,1남,1여,2여전도회 전도주일  
3/21 선교헌신예배, 정기교육위원회  
2남,3남,3여,4여전도회 전도주일  
3/28 장학위원회 헌신예배, 월례회, 당회  
고난주간(29-4.2), 성금요일(2일)  
4남,5남,5여,6여전도회 전도주일

##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순위	성명	기관	구역	주소	전화번호	섬김이	인도자
10-32	김형욱	3남	6	교창군 성내면 조동리 1752	010-8267-3663	박복임	박복임
10-33	송미정	5여	6	"	"	"	"
10-34	김희덕	청	41	"	"	김건승	"
10-35	김희균	청	41	"	"	"	"
10-36	김복희	4여	27	나주시삼영동부영A101-1502	017-631-1945	김숙자	김숙자

◆교 회: 953-3983, 070-7430-3983, 4 ◆목사관: 962-3301 ◆FAX: 952-1465  
◆부목사: 최지혁 ◆강도사: 문종승 김성훈 ◆외국인근로자담임 석창원목사  
(010-3615-1638) (010-7617-4070) (010-8327-7655) (010-3604-8139)  
◆전도사: 서향임 전순이 이수월 ◆하남은광홀스쿨: 강미순교육사  
(018-629-2785) (010-2999-7540) (010-2626-3513) (955-8291)

### 주일 낮 예배

1부 8시30분 사회: 손종기 목사  
2부 11시 설교: 손종기 목사

조용한준비 ... 다같이(반주자)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예배의부름 ... 사회자  
\*개회송영 ... 성가대  
\*기원 ... 사회자  
\*찬송 ... 10 (통34) ... 다같이  
\*성서교육 ... 제 12 문 ... 다같이  
\*사죄확신 ... 다같이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찬송 ... 91 (통91) ... 다같이  
기도 ... 1부 진영만 장로  
2부 김희중 장로

성경봉독 ... 요 10:9(신163)  
찬양 ... 할렐루야성가대  
말씀선포 ... 손종기 목사

"예수는 양의 문"

기도 ... 다같이  
찬송 ... 150 (통135) ... 다같이  
봉헌 ... 다같이  
감사기도 ... 설교자  
\*주기도송 ... 다같이  
\*축도 ... 손종기 목사  
교회소식 ... 영상광고  
새신자환영 ... 다같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주제찬송 ... 405 (통458) ... 다같이  
- 서로 인사하며 교제 합시다 -

### 선교헌신예배

[ 밀알심장재단 사랑의 음악회 ]  
오후 2시30분 사회: 김문옥 장로  
설교: 손종기 목사

열린찬양 / 설하쉬림 찬양단  
대표기도 / 옥룡 장로  
성경봉독 / 눅 10:25-37(신109)  
특송 / 선교위원회 일동  
말씀선포 / 손종기 목사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써 사람"  
헌금 / 218(통369) / 손문옥집사  
교회소식 / 영상광고  
축도 / 손종기 목사

- 2부 순서 -  
밀알심장재단 사랑의 음악회

### 삼일기도예배

저녁 7시30분 사회: 김종철 장로  
설교: 손종기 목사

찬송 / 88 (통88) / 다같이  
대표기도 / 김숙경 권사  
성경봉독 / 마 6:10(신7)  
특송 / 제24구역원 일동  
말씀선포 / 손종기 목사  
"나아가 임하시오며(2)"

헌금기도 / 95 (통82) / 조선경권사  
광고축도 / 손종기 목사

새벽 5:00 인도: 손종기 목사

### 지난주 구역예배 보고

지구장	구역	모인곳	인원	헌금	성경	다음장소	구역장	전화	우리는 돕는 선교사
제1지구장 이준호장로	1	김혜경	5	12000		정은섭	김요상	954-3319	겸면중앙교회/5만
	2	교회	2	4000		양혜숙	양혜숙	951-2437	서부은광교회/15만
	3	곽순금	6	11000	70	정영순	송희중	953-7579	장산중앙교회/5만
제2지구장 김기태장로	4	김은희	3	5000		김태석	김태석	434-2827	연동은광교회/5만
	5	교회	4	8000	150	김달삼	이현일	952-5880	경동교회/5만
	6	김재립	12	15000	150	유암덕	이동만	953-0774	금호동교회/5만
제3지구장 정하섭장로	7	김순심	3	6000		조선경	조선경	952-1672	영광교회/5만
	8	박의하					박의하	954-4684	용산중앙교회/5만
	9	김복희	3	6000	10	이영희	진영만	956-2902	노력도교회/5만
제4지구장 김문옥장로	10	오금례	7	7000		이기영	김경애	945-2713	남도시민교회/5만
	11	김판심	4	11000	21	손상원	최상윤	384-8475	서림교회/5만
	12	신진성	6	12000	54	김명관	김명관	961-9632	삼기중앙교회/5만
제5지구장 김명관장로	13	최순희	6	7000	200	김공례	김숙경	956-5064	세계포도원교회/5만
	14	임종만	6	6000		서향임	서향임	951-2785	광주반석교회/5만
	15	최경순	6	6000	69	김영월	최옥기	952-7101	오치은광교회/5만
제6지구장 이현일장로	16	박지영	5	7000	20	서정옥	전순이	671-1109	오치은광교회/5만
	17	강미순	6	10000		이봉순	조윤기	954-3784	사랑의교회/5만
	18	전윤심	7	23000	365	정천호	강성명	942-3919	심미교회/5만
제7지구장 이동만장로	19	김기태	2	2000		박경남	김기태	952-8667	광덕교회/5만
	20	김홍순	6	8000		이준호	이준호	952-8590	연화교회/5만
	21	정종균	5	7000	5	한만희	한만희	956-0484	운암평화교회/5만
제8지구장 곽세중장로	22	고진희	4	5000	40	장현자	김문옥	954-2660	구름다리교회/5만
	23	김유영	10	6000		김태호	김태호	01039778667	구름다리교회/5만
	24	방찬혁	6	13000	52	이복남	김종철	953-9917	대전교회/5만
제9지구장 송희중장로	25	교회	4	4000		서점순	서점순	961-8640	대전교회/5만
	26	정수경	10	8000	56	전현정	안영철	01050437055	송정은평교회/5만
	27	교회	3	6000	150	김덕수	손종기	962-3301	나주신광교회/5만
제10지구장 옥통장로	28	교회	5	5000		교회	서진욱	413-5357	아가페교회/5만
	29	오순애	4	9000		김막녀	김성훈	952-3304	미션21/5만원
	30	교회	4	7000	30	임춘진	임춘진	962-8516	남악신광교회/10만
제11지구장 김종철장로	31	김담호	7	8000		윤미숙	유영만	961-3477	남악신광교회/10만
	32	허성복	9	16000		이상휘	김용덕	01026362114	군선교연합회/5만
	33	안수집사회					김영근	956-1538	중도실명자선교회/5만
제12지구장 최지혁부목사	34	권사회					임춘진	962-8516	중도실명자선교회/5만
	35	중등부	6				손성은	962-6487	오일환선교사/5만
	36	고등부	7				유화평	961-3477	오일환선교사/5만
제13지구장 최상윤장로	37	은광어린이	7	10000			임현욱	954-2360	CBS기독교방송/10만
	38	아남예수	8	10000			옥승주	954-2360	CBS기독교방송/10만
	39	영연스쿨	3				방정원	954-2787	CBS기독교방송/10만
제14지구장 손종기 목사	40	대학부	16				김진선	953-3909	열방네트웍/5만
	41	청년부	13				김건승	961-9632	열방네트웍/5만
	42	교회	7	13000	150	교회	최지혁	385-1320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

### 3월 헌금위원 및 안내위원

### 다음주 봉사자

헌금	1부	옥룡	다음주일 낮기도: ◆1부 윤석 장로 ◆2부 김태석 장로 다음주일 오후기도: 김요상 장로 다음삼일사회특송: 김태호 집사(23구역) 다음삼일기도: 허경자, 헌금: 이난순 권사 금주 3/27(토) 청소: 2남전도, 1여전도회 이번주(21) 식사당번: 19, 20, 21 구역 다음주(28) 식사당번: 22, 23, 24 구역
	2부	김문옥 최상윤 한만희	
안내	이동만 서진욱 박동수 박종관 이건욱 고용주 이봉순 조선경 김숙자 권화숙 김순심 강춘자 정영옥 정순영 신은숙 송숙란 양선숙 우숙희 전문선 양재숙 황애자 임순분 김경애 조정화 박경희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이 전개되던 당시는 유대인들이 로마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정부는 유대지역에 총독과 함께 군대를 파송하여 유대사회의 질서와 치안을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렇게 파견된 군인들 중에서 백부장이란 백 명의 군인을 통솔할 수 있는 지휘관이었습니다. 고넬료가 백부장이었습니다. 가이사랴(Caesarea)는 항구도시로서 이탈리아로부터 지중해를 건너 유대지역으로 들어오는 관문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거꾸로 이곳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로마를 향해서 풀발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에는 그 당시 최고의 문명과 문물들이 헤롯대왕의 정책에 의해서 정착되었습니다. 수도인 로마 못지않은 화려함과 쾌락이 판을 치던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 살던 고넬료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을까요?

**1. 구약에서도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행10:1).**

고넬료는 단순한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구원함을 이미 받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다는 점을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구약성경에는 이방인으로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나아만과 사렙다 과부 같은 사람들입니다. 옹과 같은 인물도 이방인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이렇게 구약시대에 구원함을 받은 이방인들의 계열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마치 세례요한이 구약선지자들의 마지막이었던 것과도 같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열매를 맺습니다. 고넬료가 그러했습니다. 경건의 열매, 전도의 열매, 구제의 열매, 기도의 열매 등을 맺었습니다. 이미 중생한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였던 것처럼, 이미 구원받은 고넬료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던 것입니다.

**2.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행10:2).**

고넬료는 구원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본문이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경건과 구제, 그리고 기도의 열매였습니다. 그의 집안사람들이 그와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 한 것을 보면, 전도의 열매도 맺었습니다. 경건은 구원의 첫 열매입니다.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은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이 경건은 말이나 입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구제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야고보는 참된 경건을 “고아와 과부를 그 환란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약 1:27)고 말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경건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경건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3. 구원의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도 성령강림이 필요했습니다(행10:4).**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구원의 역사를 위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구원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 되게 하는 구원임을 보여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주 가운데 편만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통하여서 보편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이미 중생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미 구원을 받은 이방인인 고넬료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후의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데 그 중심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역사하시어서 새 생명을 갖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편입시키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바 될 우리의 하나 됨을 이해 노력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는 자신만이 양의 우리에 이르는 유일한 문으로서 자신보다 먼저 왔다고 한 자들은 다 거짓된 자들임을 천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십니다. 생명의 문입니다. 용서의 문입니다. 구원의 문입니다. 보호의 문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9 절). 예수님께서서는 그 선한 목자가 당신 자신이심을 분명하고도 공공연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자신 외에 구원의 복음을 가져왔다고 주장하는 자칭 목자들은 모두 '절도와 강도'로서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1. 예수님은 생명의 문입니다(요14:6).**

요14:6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보다 앞서 온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 인류에게 참 구원의 길을 보여 준다며 별의별 종교적 의식과 철학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인본주의적 노력에서 생겨난 결과이지, 결코 계시에 근거한 복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제아무리 노력하여도 스스로 구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생명을 줄 수 있었'습니다.

**2. 예수님은 용서의 문입니다(딤후2:5).**

딤후 2:5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 영원을 향하여 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는 죄가 가로놓여 있어서 본향을 찾을 길이 막막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참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3. 예수님은 구원의 문입니다(행2:21).**

행 2:21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세상에는 구원을 약속하는 수많은 진리가 있지만, 그것은 모두 계시에 근거하지 않은 진리이므로 결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참 진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의 이름 외에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행4:12)고 하신 것입니다.

**4. 예수님은 보호의 문입니다(시23:4).**

시23:4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안위'는 위험으로부터의 구출과 양우리 밖에 있는 짐승들의 위험과 거짓 목자들의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의미하며, 궁극적으로는 영생을 뜻합니다.

**맺는 말**

오늘의 말씀은 구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온전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십니다. 생명의 문입니다. 용서의 문입니다. 구원의 문입니다. 보호의 문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함께 참으로 중요한 것은 소망(所望)입니다. 그 믿음과 함께 최상의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은 믿음과 소망(所望)과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세가지는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다르다는 구별점입니다. 이세가지는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존재 가치입니다.

음식이 없이는 단 하루도 못살 것 같지만 사람은 음식을 먹지 않고도 40일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수면이 없이는 7 일을, 물이 없이는 5 일을, 공기가 없이는 약 8 분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 없이는 단 1분도 살 수 없다고 합니다. 살아 있다고 자부할지라도 이미 그는 죽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믿음 소망 사랑이 없는 삶은 삶 자체가 이미 죽은 것이나 같기 때문입니다. 영원(永遠)한 믿음 소망 사랑의 확신을 가진 사람의 일생은 험하게 살아가는 과정이지만 믿음 소망 사랑이 없는 사람의 일생은 험없이 죽어 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회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 Erich Fromm]은 인간을 정의하기를, “호모 에스페란스 HOMO ESPERENS” 즉 희망하는 인간”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동물들에게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희망이란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미래를 향하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사랑 안에서 영원(永遠)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 안에서 소망이 없다면 모든 것이 없어진 것입니다. 절망은 소망이 없어짐을 의미합니다.

덴마크의 철학자요 신학자였던 키엘케고르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소망 없이 사는 삶을 절망이라고 했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반드시 미래에 대한 믿음과 사랑 안에서 소망이 있어야만 합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죽지 못하여 살아간다면 그 삶 자체가 죽음에 이르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은 믿음과 사랑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과 사랑 안에서 소망은 바랄만한 근거가 있어야 참된 소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막연한 소원은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참 소망이라 할 수 없습니다. 참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참입니다. 이러한 진리 안에서 세워진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 약속을 확실히 알고 이 약속을 믿는 믿음 위에서만 참 소망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참된 소망을 가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어야 그 믿음이 참 믿음이고 참 믿음에 근거한 소망이어야 참 소망인 것입니다.

이러한 확실한 소망 안에서 믿음은 인생을 힘 있고 용감하게 합니다. 이러한 믿음 안에서 소망은 인생을 언제나 즐거워하게 합니다. 이러한 소망 안에서 이루지는 진정한 사랑은 인생을 아름답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이러한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가슴에 사랑을 심어 주시기 위하여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생명을 주심으로, 장사되신지 삼일 만에 부활승천 하심으로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섬기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섬기며 살아갑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따라가는 평안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참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감으로써 즐겁게, 힘차게, 아름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천 십년 삼월 이십일일  
담임목사 손 종기

기도의 무기는 승리와 패배 사이를 갈리게 합니다. 최고의 갑주를 입고 강한 의지로 나아간다고 하더라도 기도를 무시하면 틀림없이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마치 이는 작전 없이 전장에 나가는 군인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상황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 이상으로 알아야 할 것은 어떻게 싸우는가? 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기도는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입니다.

※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금요기도회로 모입니다. 함께 참여하여 기도의 승리를 이룹시다. ※

찬양 및 합심기도	.....	다	같	이
대표기도	.....	계	경	속
특	.....	송	.....	.....
설	.....	교	.....	.....
신유기도회	.....	이	수	월
		전	도	사

합심기도제목	
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회를 위해서(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소서)</li> <li>● 성도들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소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어나라 함께 가자! 2010년에는 주님과 함께 죽음을 각오하고 일하게 하소서</li> <li>● 2010년에 더욱 말씀과 기도로 깨어지는 교회되게 하소서</li> </ul>
기도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상 기도하는 성도되어 영적전쟁 승리하게 하소서</li> <li>● 가족과 이웃전도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되게 하소서</li> </ul>
개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에 7개(신의주,평양,원산,함흥,청진,나진,고무산)교회를 세울 수 있는 믿음, 인재, 물질, 지혜와 여건을 허락 하소서</li> <li>● 복지관건립과 복지사역을 위해 지혜, 인재, 물질 허락 하소서</li> </ul>
직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사도 흠모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충성하게 하소서</li> <li>● 2010년 임원들이 주님을 위해 충성, 봉사, 헌신하게 하소서</li> </ul>
교육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 기관의 학생들이 민족과 세계를 품는 일꾼들이 되게 하소서</li> <li>● 시간을 정하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사되게 하소서</li> </ul>
국가선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위정자들이 나라를 위해 충성하게 하소서</li> <li>● 국가, 민족, 선교사, 미자립, 농어촌교회를 위해서</li> </ul>
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원입원성도, 군복무, 결혼준비, 취업준비, 타지역 생활자녀 위해</li> <li>● 행동으로 가족구원, 전도로 이웃구원, 헌신으로 민족구원, 풍성한 전도 열매 맺게 하소서, 질병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소서.</li> </ul>

## 향기로운 예물

### ● 십 일 조

교역자: 손종기 전순이 문종승  
 장로: 송희중  
 안수집사: 이병권 한만희 장기술  
 권사: 전향남 김숙경 유양덕 조선경 양혜숙 권화숙 방정원  
 집사: 김상규 정수경 양재숙 강옥선 방연혁 박영애 송미경 김영례 손상원 이상휘  
 김상호 허성복 이병욱 이현복 김효식 계경숙 양선숙 유수중 황애자 김순자  
 ♡♡♡♡: 장영희 이영희

### ● 감사헌금

교역자: 손종기 문종승 전순이  
 장로: 김요상  
 안수집사: 최재현  
 권사: 권화숙 김순심 김숙자 방봉순 양혜숙 김복희 신점례 유금례 박경남 김재림  
 집사: 강춘자 김판심 김변순 손상원 한정자 차길자 송숙란 김인숙 김 호 오금례  
 김지현 김유영 강옥선 김달삼 최성자 손우정 박종삼 정도경 이상휘 나오임  
 김금례 옥승주 박중관 곽순금 김유정 황주영 박금용 이건욱 김은희  
 ♡♡♡♡: 이영희 문귀만 이영선 윤정옥 장영희 정천호 노병호 정순비 조리라 유영우  
 김현일 김영미 고광국 이영선 정해정 조요셉 방문현 조명엽 박성구 교육위원

### ● 선교헌금

교역자: 문종승  
 장로: 김문옥 이동만 송희중  
 안수집사: 유영만 이병권  
 권사: 양혜숙 김홍순  
 집사: 정영순 박영애 조정화 오금례 김상규 양선숙 김 호 김인숙 손우정 손상원  
 ♡♡♡♡: 장영희 유화평 유은지 이영현 이소영 이소암 윤정옥

### ● 복지헌금

손종기 이영희 문종승 장영희 송희중 이현일 서진욱 이현순 이길례 김숙경 전경순

### ● 일천번제 · 건축 · 생일 · 차량

김숙경 김천대 송희중 김종철 조윤기 이재연 이재성 김영월 최순희 김재한 김영미  
 서점순 이정자 김경민 정해정 정순영 방문현 무 명

비움으로 채워지는 것



“아무도 몰라. 머느리도 몰라!” 이런 광고카피가 유행한 적이 있다. 요리사들은 자신만의 특별한 소스나 요리법을 죽을 때까지 비밀로 간직한다고 한다. 자신의 경쟁력을 독점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김영모 과자점 사장은 반대의 길을 걷는다. 그는 책을 통해 자신만의 조리법을 공개하기를 즐긴다. 어리석은 듯이 보이지만 김영모 사장은 공개의 유익을 간파하고 있다. 더 이상 자신이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안주함의 자리를 털고 새로운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비법을

을 끌어안고 있을 때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술을 만나게 된다. 이렇듯 애지중지하던 것도 버릴 때 새로운 것으로 채워지고 더 나은 존재가 된다. 현대 자본주의를 살고 있는 우리는 높이 쌓아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탐욕을 부린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버려야 할 때가 있다. 특히 하나님께서 주는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지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죄악적인 것을 반드시 내버려야 한다.

사순절이다. 하늘이 주시는 좋은 것을 얻기 위해 빈 공간을 만들어 보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약 1:17).



감사는 행복을 여는 열쇠



어느 주일 감사헌금 내용을 읽다가 당황한 적이 있다. 어느 집사님의 감사 내용에 ‘하나님, 방귀가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적혀 있는 것이었다. 또 한 권사님은 ‘하나님, 우리 머느리 방귀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적었다. 성도들은 웃기 시작했다. 계속되는 학생의 감사 내용, ‘하나님, 우리 엄마 방귀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당 안은 성도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수술한 사람이 방귀가 나오지 않으면 음식을 먹을 수 없다. 그래서 초조하게 기다리다 방귀가 나오면 ‘아, 살았다’ 고 기뻐하는 것이다.

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방귀가 뭘까? 허구한 날 방귀를 끼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죠? 행복한 사람들에게는 이것도 감사거리입니다.”

감사가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진다는 복음 찬양이 있다. 감사하면 더 큰 감사의 일들이 생기는 것을 체험한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지금 감사를 말하는 사람이다. 감사하자. 감사하면 행복해진다.



★ 제4차 2010년 교회지킴이 숙직제 순서 ★

일자	요일	성명	비고	일자	요일	성명	비고
2/7일	주	박미정	010-3619-0362	5일	금	최상윤	010-5059-8475
		이정자	010-5509-0809	6일	토	김요상	011-602-0724
8일	월	서정순	010-8944-8640	7일	주	김희중	010-5468-1670
		김숙자	010-2360-5214	8일	월	진영만	010-5605-2902
9일	화	김동해	019-406-2586	9일	화	김태석	010-8777-2827
		방정원	010-9474-2787	10일	수	김용덕	010-2636-2114
10일	수	진윤희	010-7488-9851	11일	목	오광록	010-7603-9851
		장미옥	010-7704-9917	12일	금	유영만	010-3629-3477
11일	목	문채숙	010-5643-0198	13일	토	김영근	010-3638-1538
		양혜숙	010-6873-2437	14일	주	한만희	011-9739-0484
12일	금	김점자	010-6653-0559	15일	월	손문옥	010-8606-6487
		김숙경	010-8245-5064	16일	화	조윤기	016-681-3784
13일	토	허경자	011-9607-8475	17일	수	한경택	011-633-7200
		방봉순	011-605-3310	18일	목	장기술	011-9604-0577
14일	주	황생자	010-9877-1729	19일	금	최재현	010-6231-4589
		권화숙	010-7708-4315	20일	토	박의하	010-2231-4684
15일	월	김순심	010-7721-3238	21일	주	장승준	010-6609-2782
		유암덕	010-5339-1831	22일	월	이대남	010-2615-5064
16일	화	김정숙	010-2467-2113	23일	화	김재한	011-617-0571
		이귀님	062) 952-8590	24일	수	서진욱	010-5446-5357
17일	수	손종기	010-7283-8291	25일	목	이병권	010-6203-8640
18일	목	최지혁	010-3615-1638	26일	금	박동수	010-5602-7559
19일	금	문종승	010-7617-4070	27일	토	김용신	010-3008-6567
20일	토	김성훈	010-3827-7655	28일	주	임춘진	011-604-8516
21일	주	서향임	018-629-2785			김신자	010-7752-8667
22일	월	전순이	010-2999-7540	29일	월	서금자	016-9225-2602
23일	화	이준호	010-6280-8590			모순자	010-6610-5880
24일	수	김기태	010-6623-8667	30일	화	최옥기	010-4323-7101
25일	목	김문옥	010-2565-2602			유금례	010-9455-9579
26일	금	김명관	011-640-9608	31일	수	이봉순	016-9601-3784
27일	토	이현일	011-625-6945			황정선	010-4627-9608
28일	주	이동만	011-609-0774	4/1일	목	임현옥	010-3907-2360
3/1일	월	곽세종	011-9607-9883			장현자	010-8642-9883
2일	화	송희중	010-4370-7579	2일	금	조선경	010-5469-1670
3일	수	옥 룡	011-616-2360			김복희	010-5539-9919
4일	목	김종철	010-7735-9917				

\* 당일 숙직자는 다음날 숙직자에게 반드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교회를 위해서 기도(기도문), \*교회 상황 점검, \*교회 문단속

일부 초대교회 시대의 저술가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 다시 바울에게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요한의 세례는 준비적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행19:2-7).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읽은 것입니다. 바울의 그 세례는 성령세례를 의미하는데(참조: 행1:5, 11:16). 그것은 성령을 받지 못했던 자들에게 처음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을 받았던 사도들에게 오순절에 다시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이제 현저히 나타내 보이시는 은혜로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행2:1-4).

또 요한이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라고 말한 것은 세례의 종류를 구분한 것이 아니고, 자신과 예수님의 인격을 구분한 것입니다(마3:11; 눅3:16). 그러므로 어거스틴은 도나투스와의 논쟁에서 강조했듯이 누가 세례를 주든지 간에 그것을 실제로 주재하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은 구약의 세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스라엘도 홍해와 르음기둥 아래에서 모두 한 세례를 받은 것이요(고전10:2; 출14:26-31; 민9:15). 그 사건들은 다 신약 세례의 원형들입니다.

여섯째, 어떤 엉터리 교사들은 마치 세례가 우리에게 모든 원죄와 본성의 부패까지도 다 사라지게 해주고,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순결한 본성까지 회복시켜준다고 가르칩니다. 저들의 말처럼 원죄는 우리의 본성이 부패하고 타락한 것을 말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육체의 일들(갈5:19)입니다. 부패한 성품이 뜨거운 옹공로의 불꽃처럼 끓이지 않고 쏟아내는 온갖 더러운 일들이지요.

세례식을 통해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원죄로 인한 죄책과,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에서 완전히 해방시켜준 사실을 확실히 약속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肉)의 감옥에 갇혀 사는 동안은 여전히 죄의 공격을 받아 계속 육체의 일들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식이 그것까지 자동으로 사라지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통해 우리의 몸에서 해방될 때까지는 계속 육체의 정욕 때문에 시달리고 쓰러지고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롬8:1). 그리고 죄의 세력은 결코 다시 우리에게 지배적인 힘이 되지는 못합니다. 세례의 목적은 바로 그러한 육의 세력을 죽여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혹시 죄로 넘어지더라도 그 때마다 씩씩하게 일어나서 다시 싸우며 완전한 승리를 위해 전진해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내 정욕이 약간이라도 죽었으면 그것으로 크게 성공했다고 믿고 용기를 얻어야 합니다. 이처럼 세례는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세례를 집례 하는 자가 불량하면 그 세례도 불량하다는 오해입니다. 재세례파가 그런 주장을 하지요. 교황제도 아래서 불경건한 이상승배자들의 손을 통해 받은 세례는 다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충분한 교리로 울 바로 깨닫지 못한 채 받은 세례는 나중에 다시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마 그런 식으로 해야 한다면 온 세상의 강물을 다 동원해도 성도들의 세례를 충당하기에 부족할 것입니다.

누가 집례 했건 세례식은 주님이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식은 주님이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식은 주님을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부분적인 결점이 전체의 효력을 파괴하지는 않습니다. 처음 세례 받을 당시에 깨달음이 부족하고, 그래서 참회개가 늦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럴 수 있게 되었을 경우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때 비로소 세례로 맺으셨던 야속의 은혜가 회복되고 역사하는 것입니다.